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52호 [루계 제2307호]

주체 103
(2014). 12
20
토요일
음력 10. 29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領導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위대한領導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12월 17일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들,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추모의 마음을 안으시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领导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천만민인의 한없는 흠토의 정이 차넘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훌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 양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정되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밭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领导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의 훈장보존실, 울음홀,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의 한생을 가슴뜨겁게 돌아보았다.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 하시여 어린 시절 부터 백두산의 눈보라를 맞으시며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한생도록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혁명의 길을 걸어 오신 위대한 장군께서는 조선로동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영구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기까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걸어지시고 초강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정치군사적, 경제적 대를 마련해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한 정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고 우주과학기술과 핵기술, CNC기술을 비롯한 우리의 과

학기술이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선군시대의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리고 우리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반제반미대결전을 혁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인민의 생명인 주체의 사회주의와 나라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시였으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펼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밀ie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의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중대한 혁사적시기에 혁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당과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근본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루하신 특출한 민족사적业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말 그대로 타오르는 불길이였으며 장군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생을 빛나게 마무리한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领导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지난 3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혁명동지, 혁명전우의 대부대로 굳게 뭉쳐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널원을 구현하기 위한 장엄한 대진군을 다그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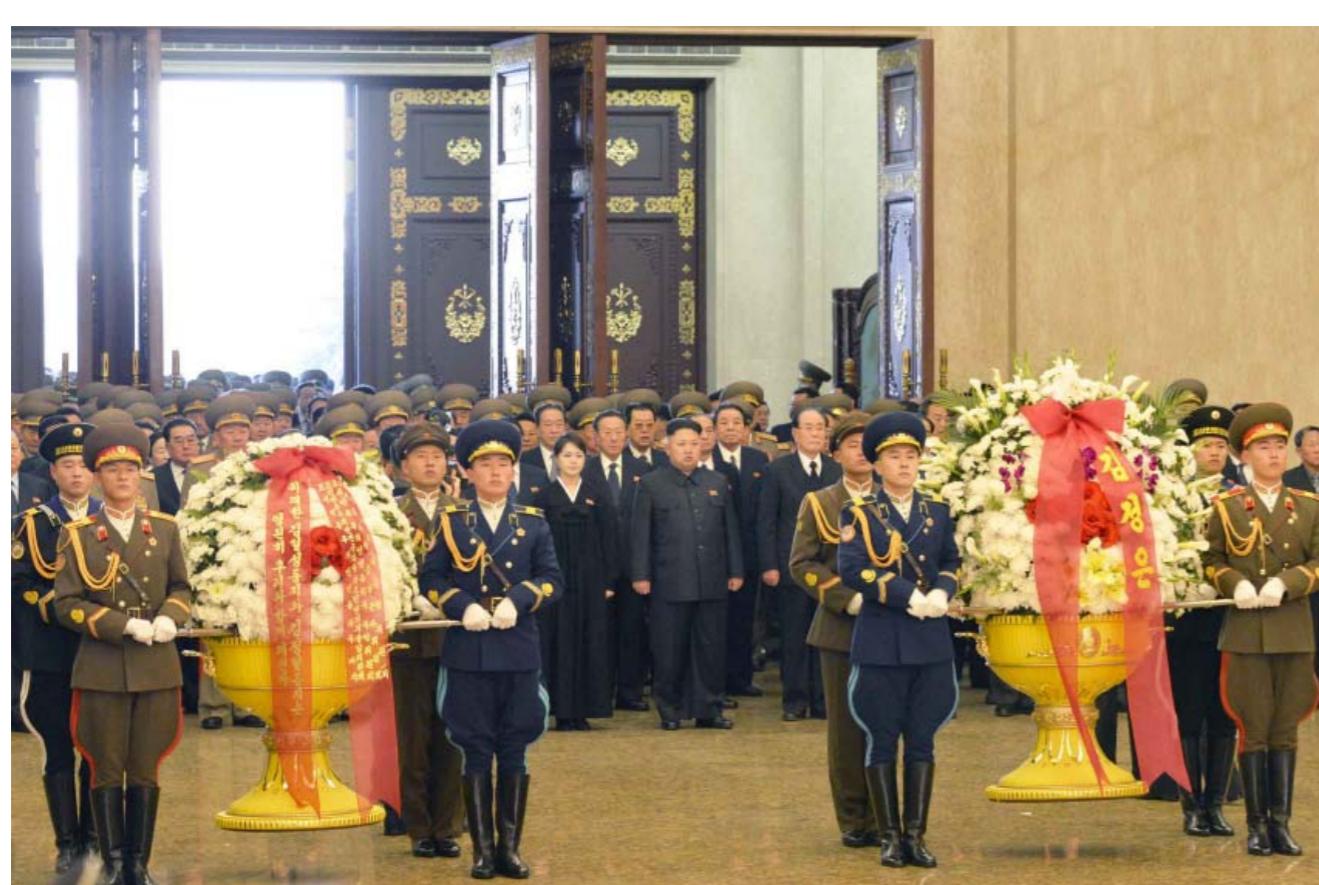
백두의 행군길을 끊곳이 이어나갈 조선의 신념과 의지를 시대와 역사앞에 엄숙히 선 언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령형생위업실현의 새 역사를 펼치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총돌격전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불철주야의 련속 강행군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정도에 의하여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널원하시던 모든 것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령자로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조선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로 변영 할것이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영생하실것이다.

참가자들은 위대한领导자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불멸의 진리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움으로써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끝까지 관철할 철석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서거 3돐 중앙추모대회 엄숙히 거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추모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서거 3돐 중앙추모대회가 17일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추모대회장인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 태양궁전광장은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가장 승업한 분위기에 잠겨있었으며 기발개양대들에는 조기 가 무겁게 드리워져있었다.

추모대회장 정면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추모대회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중앙추모대회 개회를 선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전인미답의 혼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시대와 역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 걸출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모사를 하였다.

그는 지난 3년간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온갖 지성을 다하여 어버이장군님을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셔온 숭고한 도덕의리의 3년이었으며 주체혁명 위업의 확고부동한 계승성과 불폐성을 힘 있게 파시하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온 투쟁파 전진의 3년이 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혁명의 불을 높이 들고 전인미답의 혼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정치정률과 령도풍모, 최고의 지성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햄성을 지니시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이 전면적으로 계승되는 시대,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펼치신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정치가의 성스러운 한생,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 령도의 거장의 빛나는 한생, 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 주신

모든것을 다 바친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정치정률과 령도풍모, 최고의 지성을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자주시대, 선군시대가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불멸의 사상리론적지침을 마련하시고 인류사상사의 보물고리를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신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성스러운 혁명활동로정에서 이룩하신 가장 큰 업적이며 선군선조의 천년미래를 담보하는 강력한 정치, 군사, 경제적도태를 마련하신 것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쌓아올리신 최대의 업적은 주체혁명위업완성에서 근본문제인 령도의 계승문

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풍모 그대로이신 또 한분의 백두의 친출위인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혁명은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세워주시고 만복의 씨앗을 뿌려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백두산대국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그는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

상과 유훈교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백전백승의 기치로 틀어쥐고 당건설과 혁명무력건설, 강성국가건설을 진행해 나가며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결결히 응호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뜻과 널원을 반들어 삼천리강토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며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최통해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선인민군을 대표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

서 조선인민군 차수, 청년들을 대표하여 김정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이 결의연설을 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태양기를 영원히 높이 휘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과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할 철석의 신념과 의지에 충만되어있었다.

추모대회는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여 조조포가 발사되었다.

본사기자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과 현대그룹 회장이 화환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리희호녀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화환들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여 보내여온 화환들을 16일 개성에서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리사장과 조건식 현대아산 주식회사 사장이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희호녀사와 현정은회장에게 보내시는 사의의 말씀을 원동연 부위원장이 전달하였다.

석상들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희호녀사와 현정은회장에게 보내시는 사의의 말씀을 원동연 부위원장이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일제히 묵상
—김일성광장에서—

불패의 강군을 키우신 불멸의 업적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더할 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 12월의 날과 날을 맞고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나라를 군사강국으로, 인민군대를 무적강군으로 위용펼치도록 하신 선군령장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우렷이 떠오른다. 국가의 평도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시고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인민군대를 조국수호의 제일강자로, 부강조국건설의 주력군으로 만드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의 선군장성을 더듬는 사람들의 눈앞에 다박출초 소가 어려운다.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괴눈물의 언력을 넘어 맞이한 새해의 첫아침 위대한 장군님의 다박출초소에 대한 현지 칠은 나라와 민족앞에 조성된 난국을 자위의 보검으로 뽑고나가시려는 선군령장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였다.

일찌기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에 선군령도의 첫자욱을 새기신 그날로

부터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해 걸으신 민족수호의 선군길을 더욱 억척같이 이어갈 결심을 굳히신 장군님이시였다.

승리는 오직 선군으로!

이것은 나는 앞으로 전사들과 같이 화재에서도 말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서 불라오른 신념이였다.

숨죽은 공장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 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보면서 공장이나 농촌이나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자신의 가슴은 혼연 할 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고,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을 훔쳐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이 곤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는지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장들에게 심어주신 사상과 신념, 베풀신 사랑과 믿음이 인민군대를 최고사령관과 지향도 숨결도 함께 하는 혼연일체의 대오로 굳건히 다쳤다.

오성산의 칼벼랑길과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 철령과 1211고지, 판문점과 351고지를 비롯한 최전연초소들과 조국수호의 열점지역들…

쪽잠으로 새날을 맞으시고 챠기밥으로 끼니를 에우

시며 전선에서 전선으로 종횡무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수호의 선군길은 이땅의 그 어디에나 력력히 수놓아져 있다.

조국수호의 사명감을 지니시고 천리방선, 동서해안과 나라의 영광을 지켜선 인민군부대들을 찾고찾으시며 군인들을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워주신 장군님이시였다.

최전연치고도 세일 멀고 험한곳에 위치한 인민군부대 전통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또 한분의 강철의 영장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길이 빛나고있다.

선군의 위력으로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무분별한 간섭과 침략책동을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제압하시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수호하시는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여 인민군대는 무적강군의 력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떨치며 강성국가건설을 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는것이다.

한때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에는 거대한 사나이가 마치로 장검을 마스는 모습을 형상한 조각상을 찍은 사진을 게재한적이 있다.

선진민족에는 검을 마사보습을 만들자는 글도 써여있었다. 그 작품이 나온 시대적배경을 보면 세계적판도에서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갈망과 지향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할 때였다. 그를 틈타 어떤 나라

검과 평화

의 이른바 평화제창자들은 『군비철폐』론을 찬미하면서 땅크나 비행기를 용광로에 넣는 영화도 만들어 보급하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정세추이를 명철하게 통찰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들의 『평화』론을 페蠹어보시고 승냥이가 양으로 벌할수 없듯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은 변할 수 없다. 평화는 오직 제국주의와의 타협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행취할수 있다고 못박으시였다. 그리시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검을 마사보습을 만들수는 없다고, 우리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검을 꺾을것이 아니라 검을 계속 풀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에 선군령도의 첫자욱을 남기신것은 그때부터 몇달 후의 일이다.

장쾌한 해돋이를 보시며

지금으로부터 여덟해 전 9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해의 명승 금강산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새벽에 비로봉에 오르시었을 때였다. 멀리 수평선에서 커다란 붉은 반원을 그리며 불덩어리가 솟아오르고있었다. 그 광경을 보신 장군님께서는 이제야 해돋이가 시작된다고 하

본사기자



조선 인민군의 무진 막강한 군력을 과시하는 백승의 대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11월 전 쏘련 국방상 데, 폐. 야보브의 생일 90돐에 즈음하여 축하친서, 선물,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야보브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축하단을 파견하여 자기의 생일축하행사를 의의 있게 진행된다 대해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였다. 70고령이 될 때까지 50여년을 군복을 입고 산 그는 여러 차례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상봉하고 우의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그 나날 그이의 정치실력과 평군포모에 매혹된 그는 김정일장군과 필승장군, 평화와 명장이라는 내용의 글을 내였다.

다음의 내용은 그 일부이다.

현세기의 명장 김정일동지를 알게 된 것은 나의 인생에서 커다란 기쁨으로 된다. 전 쏘련의 13대 국방상이었던 나는 천선적인 조선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김정일동지의 접견을 받는

『김정일동지를 알게 된 것은 내 인생의 커다란 기쁨』

- 전 쏘련 국방상의 추억 -

파정에 그분의 위인상에 매혹되지 않을 수 없었다. 명장의 지략과 용맹은 민족의 사활을 결정짓는 전쟁이나 군원정에서 보게 되고 평가된다. 그렇다면 열전 못지 않게 정치적대립과 군사적정세가 점에 한 현시대의 명장은 어떤 사람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가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1993년초 조선에 대한 어마어마한 〈특별사찰〉과 집단제재가 목전의 현실로 되어가고 있을 때 세계는 조선반도에 서의 군사적 충돌을 불가피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조선에서의 새 전쟁 발발위험성이 나도 가슴을 조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폭전령승하는 조선

취가 차넘치도록 하신 그이의 조국애와 민족에는 이를 아름다운 산천경개와 보물같은 천연재부가 많은 것은 민족의 자랑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산 좋고 물맑은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불리워왔다고 하시면서 백산과 금강산, 묘향산, 총석정을 비롯하여 세상사람들이 부리워하는 명산, 명승지들이 많으며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후세에 걸이 전해갈 천연기념물들도 많다고 하시였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에 대한 그이의 가르침처럼에 담긴 뜻을 새길수록 력사유적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관리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숨은 힘을 기울여온다. 그 나무의 생물학적나이를 보면 516년에 불사를 지을 때 심은 것으로 계산하는

상을 뒤집었다. 그처럼 평화한 정치군사적대결이 평화적으로 해소된 레는 일찌 없었다. 강철의 의지와 뛰어난 지략의 소유자이신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대용단을 내려 역경을 운정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했다. 세계는 물끓듯 하였고 사례는

그분의 군사적예지와 지략, 해박한 군사지식에 백전로장들도 탄복하고 있다.

나도 군인생활로 늙었지만 레외로 절수 없다. 그분과의 상봉에서 나는 그것을 확인하였다. 소대장으로부터 중대장, 대대장, 대장, 사단장, 군단장, 집단군사령관, 군관구사령관 등 지휘관의 직무들을 려임하고 국방상의 중책까지 감당하고 군인성장의 어려운 단계도 뛰어넘지 않고 군복무의 세부까지도

그때마다 전쟁은 방지되었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견인불발의 노력과 훌륭한 군사적지략을 떠나 이 력사적인 결

파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평화는 인민의 의지와 군대에 의해 유지되 된다는 력사의 진리대로 정직적리량과 함께 강한 군대

명이 력사상 처음으로 발표된 사실을 누구나 다 기억할 것이다. 1994년 10월 미

국은 핵문제의 전면적해결에 관한 조미사이의 기본분

의문에 서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의 최고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미합중국을 린頓대통령이 담보서한을 보내었다. 련전령승하는 조선

경우 1500년쯤 되는것으로 되는데 현재의 기록은 2000년으로 보고있었다.

그 나무의 래력에 대해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야은행나무가 실지 몇년 자란 나무인가 하는것을 해당부문의 전문가들이 와보고

그럴것이라고 하시며 자리에 놓고 못하신 그이께서는 금야은행나무가 2000년 자란것으로 되면 알림판에도 이렇게 썸은행나무는 희한한 나무를 보지 못할번 하였다

그리고 하시였다. 나무에 은행이 얼마나 달리는가도 알아보시고 가시던 걸음을 되돌리시며 또 바라보시며 정말 은행나무가 굉장하다고, 몇십세기에서

온 나라의 포구들마다에 그분의 군사적예지와 지략, 해박한 군사지식에 백전로장들도 탄복하고 있다. 그분과의 상봉에서 나는 그것을 확인하였다. 소대장으로부터 중대장, 대대장, 대장, 사단장, 군단장, 집단군사령관, 군관구사령관 등 지휘관의 직무들을 려임하고 국방상의 중책까지 감당하고 군인성장의 어려운 단계도 뛰어넘지 않고 군복무의 세부까지도

그때마다 전쟁은 방지되었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대용단을 내려 역경을 운정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했다. 세계는 물끓듯 하였고 사례는

그런것만큼 우리 나라의

참가없이 토의된 그 어떤 유엔의 결의도 인정할수 없다.

조선의 정당한 립장이 반영된 성명이 발표되어자마자 세계는 또다시 죽가마 끊듯 하였다.

미국들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단 한점의 공포나 우려도 없다. 그이

는 진정 바위처럼 굳

강철의 의지와 정

무장군집선에 대한 조선인민군의 대응은 단호하였다.

도적의 매를 드는 적으로

미국은 『푸에블로』호를 지

정된 시간내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무력으로 그 학살을

되찾겠다고 위협하며 조선반

도주변에 침략무력을 대대적

으로 증강하였으며 간첩선이

나포된 3일째 되는 날에는

평양주재 어느 한 나라의 대

사를 내세워 우회적인 『암례』도 가하려 들었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조선을 주시할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언하시였다.

미국들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단 한점의 공포나 우려도

없는 것처럼 굳게

정면으로 대처하였다.

그리고 그의 정의로운

행동은 세계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의 대응은 단호하였다.

도적의 매를 드는 적으로

미국은 『푸에블로』호를 지

정된 시간내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무력으로 그 학살을

되찾겠다고 위협하며 조선반

도주변에 침략무력을 대대적

으로 증강하였으며 간첩선이

나포된 3일째 되는 날에는

평양주재 어느 한 나라의 대

사를 내세워 우회적인 『암례』도 가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정의로운

행동은 세계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의 대응은 단호하였다.

도적의 매를 드는 적으로

미국은 『푸에블로』호를 지

정된 시간내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무력으로 그 학살을

되찾겠다고 위협하며 조선반

도주변에 침략무력을 대대적

으로 증강하였으며 간첩선이

나포된 3일째 되는 날에는

평양주재 어느 한 나라의 대

사를 내세워 우회적인 『암례』도 가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정의로운

행동은 세계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의 대응은 단호하였다.

도적의 매를 드는 적으로

미국은 『푸에블로』호를 지

정된 시간내에

대결정책이 초래할것은 북남관계의 파국이고 자멸이다

북남관계 파괴자는 누구인가

지나온 이 한해는 북남관계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이 대결과 충돌로 얼룩진 불미스러운 나날들로 흘러왔다. 한해가 저수는 지금 북남관계는 최대로 악화되어 있고 서로에 대한 불신은 증폭될대로 되었다. 이 한해는 우리 겨레와 역사에 무엇을 깨우치고 있는가. 분별 69년째의 열두달은 무엇을 철저한 교훈으로 새겼는가.

대결정책, 그것으로 초래될것이란 북남관계의 파국이고 자멸이라는 그것이다.

올해에 공화국은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의 비정상적인 불신과 대결을 끌끌내고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의 넓은 길을 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북남관계개선의 불위기를 마련할데 대한 공화국의 신념은 울린 통일에 국의 호소였다. 그뒤를 이어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이 려워 발표되었다. 그것은 남측에 보내는 관계개선의 큰 신호였다.

이에 따라 2월 14일에 진행된 북남고위급접촉에서는 출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종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일련의 핵의를 이루하였다. 이 핵의들은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앞으로의 북남관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였다.

외국에서는 학살자, 통증에서는 미친자

지금 세계는 미의회 상원 정보위원회가 공개한 『미중양정보국(CIA)의 고문실태보고서』로 하여 법석 끊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물론 지금까지 미국에 추종하던 유엔 인권기구들까지도 『인권유린 범죄의 심판에 대한 미국』, 『인권에 대한 폭정의 상징』, 『책임자 형사처벌』 등 인권 참살의 원흉인 미국을 규탄해 나서고 있다.

자국내의 펴구순에서 감행된 인종차별의 학살사건도 혐악한 것인데 전세계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감행된 미국의 아만적인 고문만행이 이후의 염라대왕도 경악할 반인권 실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삶해먹은 고양이상을 해 가지고 병어리시 능을 하고 있다.

그 누구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떠들 때는 엄지개를 따라 짓어내는 강아지처럼 있을 때 차리 살 자리 모르고 캠프대너리 상전이 모두메를 맞고 꼬리를 드리우게 되자 눈치만 살펴며 책판보도 몇 편만 내고는 임만

벙긋거리고 있다. 참으로 가련한 주구의 비참한 물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는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 악정으로 하여 남조선도 미국과 다른 이유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법을 제정해놓았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온 한 해 남조선 정국과 사회를 들끓게 한 『세월』 호참사는 그만두고라도 70m의 굽뚝에 올라가 통성투쟁을 하는 로동자들을 비롯한 로동의 권리 찾기 위한 투쟁, 100만명의 공무원을 빙궁으로 몰아가는 『공무원금급금액 협약』을 반대하는 시위를 비롯하여 매일과 같이 파업이 벌어져 남조선은 파업으로 날이 새고 날이 지는 말그대로 『파업왕국』이 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떠들던 보수집권세력이 해외동포의 이기主义로마자 단립하고 『선진국』이라 하면서 언제인가설계 인터넷에 대한 감청까지 폐상사로 여긴다. 그래도 상전에 대한 충격의 『도리』는 잊지 않았는지 그 삶의 권리를 포기한 자살자를

로 오명을 받은 『자살공화국』 소리가 이제는 심상한 『단풀뉴스』처럼 들리고 그것이 군대내에도 전파되어 군대내 자살자수도 널로 늘어난 가고 있다.

군대내의 자살은 미국식 『병영문화』의 전파인 『군기갑기』, 『동동이 규율에』인한 것으로서 상급, 상관, 동료에 의한 구타, 기합, 폭행, 성폭력 등이 만연하여 군기피현상이 보편화되고 남조선군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되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이것도 나라인가?』하는 한탄과 절규를 찾기 위한 투쟁, 100만명의 공무원을 빙궁으로 몰아가는 『공무원금급금액 협약』을 반대하는 시위를 비롯하여 매일과 같이 파업이 벌어져 남조선은 파업으로 날이 새고 날이 지는 말그대로 『파업왕국』이 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떠들던 보수집권세력이 해외동포의 이기主义로마자 단립하고 『선진국』이라 하면서 언제인가설계 인터넷에 대한 감청까지 폐상사로 여긴다. 그래도 상전에 대한 충격의 『도리』는 잊지 않았는지 그 삶의 권리를 포기한 자살자를

죽은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판문을 막는데 급급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붙은 불에 키칠하는 격으로 되고 말았다.

시간이 지난에 따라 감찰보고서를 통해 정윤회의 눈밖에 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미 전에 리유없이 모두 죽어버렸다. 학생들이 이주가 되었다고 한다.

남조선의 현 인권실태가 이렇게 미국이나 다른 유통으로 보수집권세력이 미국의 반인권실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우연한 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인권위원회가 전역의 16개 종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두번 다시 남조선에 대해서 나오고 싶지 않다는 학생이 10명 중 6명이 되었다고 한다.

남조선의 현 인권실태가 이렇게 미국이나 다른 유통으로 보수집권세력이 미국의 반인권실태에 대해 나오는 것은 우연한 것이다.

그리고 『인권』 대표인 노릇을 하는 『인권재판판』으로 차지하는 미국의 『인권』 대변인 노릇을 하며 공화국의 참다운 인권상을 날조비방하려고 할 것이다 아니라 다 쳐그려진 세 집안일이나 신경씨야 하며 세계를 경악케 하는 미국의 반인권죄악에 대해 할 말을 해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집권후반기에서나 들려올 수 있는 다음기 『대통령』 후보자 소리가 현 집권자의 임기나 종반기에 들어선 지금 거침없이 왕왕 울려나오고 『정윤회국정 개입사건』을 두고 『정부』와 『국회』 사이, 여야사이의 대통령로 정치가 장판이 되는 등 남조선정국은 일대 혼란에 빠져있다. 이를 두고 언론, 전문가들은 현 집권자의 『레이더(통치위기)』 현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집권세력들이 차지하는 『선진국』의 현실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마음이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사건을 지켜본 민심의 견해이다. 려사는 재현된다고 한다. 언론, 전문가들은 정윤회의 『국정개입의혹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 정국이 혼동하고 있다가 하면서 박정희집권시기 김종필과 리호락, 김형숙 사이의 권력다툼, 희망집권권을 골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근거 있는 자료들이 공개되고 이를 청와대가 인정한 사실, 사건에 진루되었던 경찰이 경찰의 강압에 놓이거나 자살한 사실 등 이러한 일들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 정윤회의 『국정』

현대적인 수산물 가공기지

- 칼마식료 공장을 찾아서 -



크지 않은 부지면적에 특색있는 울타리로 둘러막힌 칼마식료공장의 산뜻한 단층건물들은 외벽타일의 색깔과 장식부터가 수산물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식료공장의 특성을 잘 살려주고 있다.

정문으로 들어서니 공장의 부지면적과 생산능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공장전경도와 행동진경조한 명예의 생산공정을 보여주는 생산공정도가 한눈에 안겨왔다.

《모든 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붙인 생산건물앞에서 공장의 김기철지배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 공장은 명란젓, 창난젓, 달린명태, 달린나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산물을 가공품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물고기가 가공기지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원산시의 명당자리에 공장터 전을 잡아주시고 명청을 《길미식료공장》으로 부르도록 해주시었으며 윤영수 6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공장을 찾

아주시었다고 말하였다.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 높은 우리의 상표를 단 수산물가공품을 안겨주시려 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을 폐부로 느끼며 우리는 생산건물로 걸음을 옮겼다.

건물에 들어서니 생산현장과 격폐된 복도를 따라 윗쪽에 종합조종실, 1차가공실, 급동기, 승화건조로 등 기본생산현장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125t의 저장동력을 가진 행동기 8개가 있었다.

복도를 비롯한 건물의 바닥은 에폭시수지도장을 하여 산뜻하였고 살창모양의 구조물을 맨 천정은 마치 항공역을 밟은 듯하였다.

우리는 먼저 종합조종실에 들어왔다. 앉은자리에서 흐름식으로 이어진 전반적 생산공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생산공정들이 순차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화면들에 현시되고 있었다.

승화건조로라고 죄여진 화면에서 머리를 기웃거리는 우리에게 윤영수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승화라는 말은 고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된다는 뜻인데 승화건조는 행동진공건조라는 말이다.

일반밀린제품은 자연환경 속에서 해빛과 바람에 의해 서 말리운다면 우리 공장제품은 가공품을 급동기에 서 -30°C까지 얼어있다가 승화건조로 넣어 진공상태에서 승화시켜 말리운다.

승화건조한 수산물은 일반적으로 말린것에 비해 맛과 냄새, 영양성분을 거의 그대로 보존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말린 상태로 먹어도 좋고 특히 일정한 정도 물에 불군 다음 끓여면 자신의 고유한 맛과 냄새, 영양성분이 그대로 되살아난다.

우리는 복도유리를 통해 1차가공실을 들어다보았다.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리는 작업장에서는 해동설비에서 녹은 명태들이 비늘제거기 거쳐 벨트를 따라 흐르면서 가공공동에 의해 내장처리, 세척 및 바탕건조공정을 거쳐 궤도식밀차에 실려 급동

기에게 들어가고 있었다. 두대의 급동기에 혼숙 들어가는 수산물을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옆에 있는 승화건조로 앞에서 여러명의 기대공들이 기대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운영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다. 생산은 설비가 아니라 사람이 한다는 자각을 알고 자기들의 기술기술을 수준을 높이려고 애쓰는 이곳 로동자들의 미더운 모습이었다.

호흡선을 따라 우리는 선별포장실에도 들리었다. 기술준비실의 기술자들이 절속주입포장기와 진공포장기를 이용하여 승화건조된 명태들을 제품의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장해보며 토론을 하고 있었다. 공장의 마크를 그린 포장봉지마다에는 《행동진공건조한 명태》라는 상표가 찍혀있었다. 무드기 쌓인 제품들을 보느라 녹은 명태들이 비늘제거기 거쳐 벨트를 따라 흐르면서 가공공동에 의해 내장처리, 세척 및 바탕건조공정을 거쳐 궤도식밀차에 실려 급동

명의 기대공이 분쇄 및 혼합된 원료로 사출기에서 불투명한 수지포장장을 렌즈 찍어내고 있었으며 맞은편의 행동고에서는 행동된 명태가 밀차에 실려 1차가공실로 운반되고 있었다.

공장을 돌아볼수록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윤례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동해지구에 현대적인 물고기 가공기지를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앞으로 그 어디에서도 홍내벌수 없는 명상표, 명예 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상표가 불은 맛 좋고 영양가높은 수산물을 가공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생산의 동을 높이 울려나가겠습니다.》

지배인의 신심에 넘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상점 매대에서 우리의 수산물가공품들을 받아안을 인민들의 기쁨넘친 모습을 그려보았다.

한쪽으로 사출기실에서 한

본사기자 최대성

8월 두차례에 걸쳐 공장을 찾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6남매 가족의 23개 대 학 졸업증

제103주제 6남매 가족의 23개 대 학 졸업증

<p